



대입 환경변화에 대비한 진학지도

1 수시와 정시는 별개의 전형인가?

대입에서 수시는 종합전형을 중심으로 교과, 논술, 실기전형이 있고 정시는 수능을 중심으로 하는 정시전형이 있다는 점은 누구나 다 아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형구분은 수시와 정시는 분리된 형식의 독립된 전형일 것이라는 인식을 주기에 충분하다. 서울시내 주요대학의 수시전형의 주를 이루는 종합전형에서 주요대학들 가운데 최저학력기준을 반영하는 대학이 소수에 불과하므로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교내 활동의 우수성 정도에 따라 평가받는 종합전형은 수능과 무관하다고 여기는 것이 무리가 아니다. 반대로 수능에서 강세를 보이는 재수생과 N수생을 중심으로 정시에 초점을 둔다고 생각하는 것 또한 이상하지 않다. 이는 처음 고3 담임교사뿐 아니라 입시를 현장에서 지도하는 교사들의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생각이라고 본다.

실제로 2021대입의 수시와 정시 인원을 비교해보면 일면 타당한 추론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내 주요대학의 선발인원과 수능최저학력기준 여부에 따른 인원을 분석해 보았다.

아래 표는 서울시내 주요대학의 2021 선발인원을 대학별로 비교한 것이다. 비교기준은 수시에서는 서울시내의 대표적인 전형인 종합전형을, 정시에서는 수능위주의 일반전형을 대상으로 했다. 계열별 인원에서 ()는 (최저 적용 인원/최저 미적용 인원)을 비교한 것이다.

〈 서울시내 주요대학의 2021 선발인원비교 : 수시(종합전형) vs 정시(수능) 〉

*계열별 인원수 중 (/)는 (최저적용/최저미적용)을 비교한 내용임

대학명	수시(종합)			정시(수능)		
	인문	자연	누계	인문	자연	누계
고려대학교(서울)	850(620/230)	836(558/278)	1,686	341	340	681
서울대학교	872(288/584)	1,342(439/903)	2,214	281	398	679
연세대학교(서울)	863(0/863)	801(0/801)	1,664	514	520	1,034
소계	2,585	2,979	5,564	1,136	1,258	2,394
서강대학교	514(0/514)	301(0/301)	815	292	185	477
서울교육대학교	135 (100/35)		135	157		157
성균관대학교	798(0/798)	690(0/690)	1,488	467	536	1,003
한양대학교(서울)	394(0/394)	524(0/524)	918	274	461	735
소계	1,841	1,515	3,356	1,202	1,182	2,384
경희대학교(서울)	887(0/887)	971(0/971)	1,858	509	665	1,174
서울시립대학교	294(0/294)	293(0/293)	587	267	289	556
이화여자대학교	472(472/0)	371(371/0)	843	287	327	614
중앙대학교(서울)	604(0/604)	476(0/476)	1,080	271	441	712
한국외국어대학교(서울)	906(0/906)	145(0/145)	1,051	927	291	1,218
소계	3,163	2,256	5,419	2,261	2,013	4,274
건국대학교(서울)	473(0/473)	885(0/885)	1,358	344	590	934
동국대학교(서울)	590(0/590)	554(0/554)	1,144	415	333	748
숙명여자대학교	420(0/420)	252(0/252)	672	314	197	511
홍익대학교(서울)	120(120/0)	259(259/0)	379	249	532	781
소계	1,603	1,950	3,553	1,322	1,652	2,974
광운대학교	205(0/205)	381(0/381)	586	223	396	619

대학명	수시(종합)			정시(수능)		
	인문	자연	누계	인문	자연	누계
국민대학교	441(0/441)	495(0/495)	936	418	349	767
명지대학교(서울)	385(0/385)	37(0/37)	422	333	22	355
서울과학기술대학교	55(0/55)	308(0/308)	363	85	565	650
성신여자대학교	375(0/375)	258(0/258)	633	267	205	472
세종대학교	132(0/132)	413(0/413)	545	209	559	768
송실대학교	302(0/302)	426(0/426)	728	392	444	836
소계	1,895	2,318	4,213	1,927	2,540	4,4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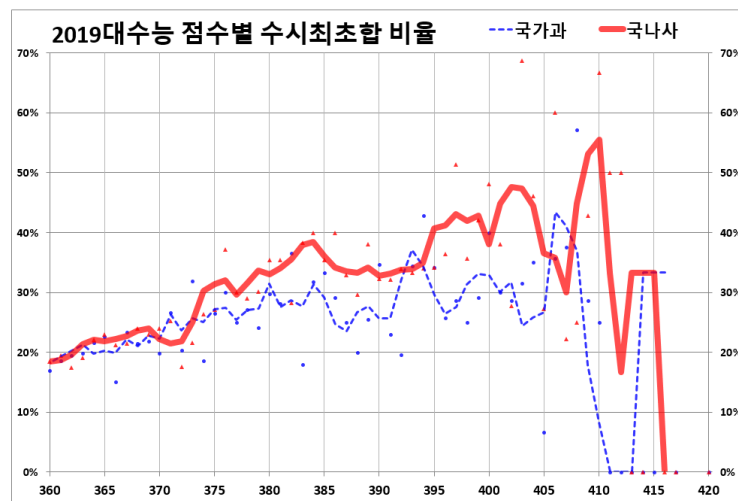
위 표에서 의미하는 시사점은 소위 선호도가 높은 상위15개 대학은 종합전형 선발인원이 정시 수능전형 선발인원보다 많다. 서연고는 5,564/2,394, 서성한과 서울교대는 3,356/2,384, 중경외시이는 5,419/4,274, 건흥동숙은 3,553/2,974, 광운대 및 다른 대학은 4,213/4,467로 선호도가 높은 대학일수록 종합전형 선발 비율이 높고 차츰 종합과 수능위주의 정시 비율이 비슷해지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이 대학들 중 고려대 일반전형 중 계열적합형과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 서울교대, 이화여대, 홍익대 종합전형을 제외하고 다른 대학의 종합전형은 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수능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이 교과 성적에 더 매달리고 수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학업유형을 고려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다.

2

수시와 정시가 별개라는 믿음에 관한 팩트 체크

앞서 언급한 수시와 정시가 별개라는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선 실제 서울시교육청에서 수년간 추적했던 데이터의 경향성을 통해 팩트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믿음과는 다른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먼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자료1〉 수시최초합격자 비율과 수능과의 상관관계



[출처] 서울시교육청 프로그램팀 수시분석자료

[그림] 2019 대수능 점수별 수시최초합 비율 비교

위 그래프는 수능의 국수탐 표준점수 합을 가로축으로 놓고 수시 최초합 비율을 세로축으로 설정한 자료이다. 국수탐 표준점수 합이 370점이라는 것은 평균 등급 2.5~3.0등급 이내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쉽다. 수시 최초합 비율에서 20%란 6장의 원서 중 최소 한 장은 합격하였다는(20% 합격률) 것을 의미하며 30%선은 두 장은 합격할 수 있다는(30% 합격률) 점을 의미한다. 이 그래프에서 재미있는 구간은 표준점수 370점 이상의 구간이다. 수능 3등급 이상을 받는 학생들은 최초합 비율이 20%에서 30%로 올라간다. 그 이상의 점수를 받은 학생들은 자연계열에서 다소 하락하는 구간이 있지만 이는 의예과를 희망하는 학생이 많아서 발생한 지원 성향에 따른 이상구간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수능 점수가 높아질수록 지속적으로 수시에서의 합격률이 상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시원서를 작성할 때 있어서 자신이 정사에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높은 대학을 지원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위의 결과는 수시 지원 경향과 맞물려 보면 지원대비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의 비밀이 숨어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자연계열에서 수능 평균이 2.5~3.0 등급일 경우 정사에서 건흥동숙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대학을 포함했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광운대나 기타 다른 대학에 한 장 정도를 쓸 수는 있겠지만 거의가 자신이 정사에서 지원 가능한 범위 대학을 제외하고 선호도가 높은 상위권 대학을 지원한다고 봐도 무리가 없다. 그럼 30%이상의 수시 최초합이라는 것은 건흥동숙대 이상의 학교에 합격을 한 경우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교과전형이

거의 없는 상위 15개 이상의 대학의 수시의 많은 비중이 종합전형이라는 점을 비춰보면 대부분의 학생이 최저가 없는 종합전형으로 합격했거나 최저가 있는 교과와 논술로 합격했다고 해석이 가능하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의 합불 데이터에서도 그런 결과를 보여준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일까? 대학이 지원자의 수능 성적을 본다는 의미일까? 최저 학력기준이 없을 경우 수능성적의 열람이 불가능하므로 구조적으로 그런 전제는 시스템 상 불가능하다. 아니면 대학이 수능 성적이 좋은 학교 혹은 명문고 출신 지원자를 더 선호하여 이를 종합전형 선발시 반영한 현상에서 비롯된 것일까? 해당 학교를 졸업했다고 무조건 선호하는 고교 등급제 같은 제도는 종합전형을 그렇게 보고 싶은 일부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다. 물론 단위학교의 학업역량의 평가에 있어서 차이를 두고 해석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특정 고등학교의 일정등급을 일관되게 유리하게 평가하는 경우는 드물며 이르기 위해선 특정 상수를 교과와 정량평가에서 실시해야 하지만 정량평가적인 요소가 없는 종합평가에서는 불가능하며, 여러 단계의 교차 검토를 하는 종합전형의 서류전형 시스템을 고려하면 무리한 전제라고 할 수 있다.

종합 전형이 특정 활동 몇 가지와 특정 교과 몇 과목을 이수해서 합격할 수 있는 전혀 다른 세계에 있는 학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학업역량을 갖춘 학생을 선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 다시 말해서 서울시내 주요 15개 대학은 정시나 종합전형이나 실제로는 일정 부분 학업역량이 갖추어진 학생들을 선호하며 이 점을 고려하여 대학의 사정에 맞게 인원규모를 결정한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 입시결과에서도 나타났을 뿐이다.

이렇게 말할 경우 수능에서 1등급과 3등급이 동일한 학업역량을 갖추었다고 믿기 힘든 이들이 많을 수 있다. 하지만 2개 등급의 차이가 심각한 학업역량의 차이를 둔다고 말하는 것이 가능 할지 의문이다. 1~2등급과 2~3등급의 차이는 무엇일까? 두 가지 등급의 차이를 문항수로 환산해 보면 국수영탐 기준으로 총 160문항 중 10여 문항차이에 불과하다. 수시와 정시에서 수능점수활용의 차이가 분명 할 뿐 일정 수준의 학업역량을 가지는 학생이 현재 입시구조에서 유리하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정시에선 표준점수, 백분위를 기본적으로 활용하며 선택과목의 종류, 문항별 배점, 점수의 종류 등에 따라 유불 리가 바뀌게 되고 이를 마치 그럴듯한 점수의 위계로 보여준 배치표의 착시 현상으로 인한 선입견을 가지기 쉽다. 하지만 수시에서 종합전형의 경우 3년을 준비한 과정이며 학년별로 최소 30여명 이상의 교사가 기록한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하는 것이 수능에서의 10문항의 차이를 극복하고도 남을 만큼이라는 점은 입시를 아는 교사라면 모두 동의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또한 반복된 패턴 연습을 통해 1~3등급의 차이가 발생했다는 것을 대학도 안다. 수시와 정시는 모두 학업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이며 그 핵심은 수능이다. 수시가 수능과 무관하다는 말은 정시가 교과와 무관하다는 말과 같을 수 있다. 일정 학업역량을 갖춘 학생의 교과와 수능은 전국단위 선발이 가능한 몇몇 고등학교에서나 예외적일 뿐 일정 차이를 두는 패턴을 가지게 된다. 예를 들어 교과 성적이 충분하지 않은 학생이 수능만 봐서 잘 될 가능성은 적으며 수능 성적이 교과보다 유리하더라도 결과의 한계가 나타난다. 반대로 교과만 잘나오는 학생이 면접이 있는 종합전형에 유리할 수 없고 서류에서 나타나는 학업역량의 깊이도 차이가 발생한다. 또한 위 그림에서 본 바와 같이 지원대비합격률이 높을 가능성이 적다. 수능과 교과 모두 잘 하면 가장 좋겠지만 두 요소 사이에 밸런스를 잃었을 경우 상위권 대학에 진학할 확률은 그만큼 낮아지게 된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최근의 경향은 종합 전형을 지원할 때 과도하게 겉만 화려한 활동이나 작년도 합격자 평균에 근거한 단순히 우수한 교과 성적을 기준으로 유불리를 따지는 경우가 많다. 2015 교육과정의

첫 적용학년인 2021대입에서는 한 가지 더해서 희망 전공 관련 고교에서 이수한 선택교과를 과도하게 맹신하는 경향이 추가될 우려가 있다. 진학지도 시에 학업역량이라는 부분에서 상담자는 객관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자료2〉 서울시 주요 12개 대학의 수능-교과 평균치 비교

수능과 수시최초합 비교보다 주요 12개 대학의 지원자와 합격자의 수능-교과 상관도를 살펴보면 앞서 밝힌 두 요소의 밸런스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아래 표는 2018대입과 2019대입에서 주요대학에 지원자와 합격자의 교과평균, 표준편차, 수능평균, 수능표준편차를 비교한 표이다. 지원자의 평균보다 합격자의 평균이 높은 것은 당연하지만 아래 표에서 앞서 그래프에서 설명한 수능평균 3등급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평균 3등급은 4개영역이 모두 3등급을 포함하여 평균치이다. 즉, 상위 12개 대학에서 요구하는 학업역량의 최소 수준을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는 자료라고 해석하면 무리가 없다. 만약 교과만 우수한 학생이 자신의 교과 등급이 교과 평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무리하게 상위권 대학만을 고집할 경우를 가정해 보자. 통상 이런 유형의 학생은 선호대학 뿐만 아니라 선호학과와 계열도 비슷한 경우가 많고 정시에서의 가능권 대학을 설정하지 않고 무리하게 최저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종합전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 학생이 지원한 종합전형의 경쟁률이 30:1 수준일 경우 30명 정원의 한 학급 내에서도 한명이 붙는다는 의미인데 단순 교과 성적으로만 수시 지원을 결정한다면 지원대비합격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 2018~2019대입 수시전형 주요 12개 대학 지원자 및 합격자 교과 수능 성적 비교 〉

년도	자격	대학	계열	구분	전형명	교과 평균	교과 표준편차	수능 평균	수능 표준편차
2018	지원자	고려대	인문	교과	고교추천Ⅰ	1.3	0.5	2.2	0.9
2018	합격자	고려대	인문	교과	고교추천Ⅰ	1.2	0.1	1.7	0.6
2018	지원자	고려대	인문	종합	고교추천Ⅱ	1.7	0.5	1.9	0.7
2018	합격자	고려대	인문	종합	고교추천Ⅱ	1.6	0.3	1.6	0.4
2018	지원자	고려대	인문	종합	일반전형	2.7	0.9	2.0	0.8
2018	합격자	고려대	인문	종합	일반전형	2.0	0.5	1.6	0.3
2019	지원자	고려대	인문	종합	일반전형	2.6	0.7	2.1	0.8
2019	합격자	고려대	인문	종합	일반전형	1.9	0.5	1.4	0.6
2019	지원자	고려대	인문	교과	학교추천전형Ⅰ	1.5	0.5	2.2	0.9
2019	합격자	고려대	인문	교과	학교추천전형Ⅰ	1.2	0.2	1.7	0.5
2019	지원자	고려대	인문	종합	학교추천전형Ⅱ	1.7	0.4	1.9	0.7
2019	합격자	고려대	인문	종합	학교추천전형Ⅱ	1.6	0.3	1.5	0.4
2018	지원자	고려대	자연	교과	고교추천Ⅰ	1.4	0.5	2.4	0.9
2018	합격자	고려대	자연	교과	고교추천Ⅰ	1.2	0.2	2.2	0.6
2018	지원자	고려대	자연	종합	고교추천Ⅱ	1.8	0.5	2.3	0.8
2018	지원자	고려대	자연	종합	고교추천Ⅱ	1.8	0.5	2.3	0.8
2018	합격자	고려대	자연	종합	고교추천Ⅱ	1.6	0.3	1.9	0.5
2018	합격자	고려대	자연	종합	고교추천Ⅱ	1.6	0.3	1.9	0.5
2018	지원자	고려대	자연	종합	일반전형	2.6	0.8	2.3	0.8
2018	합격자	고려대	자연	종합	일반전형	2.1	0.6	1.8	0.4
2019	지원자	고려대	자연	종합	일반전형	2.6	0.7	2.5	0.8
2019	합격자	고려대	자연	종합	일반전형	2.1	0.5	1.8	0.5

V. 대입 환경변화에 대비한 진학지도

년도	자격	대학	계열	구분	전형명	교과 평균	교과 표준편차	수능 평균	수능 표준편차
2019	지원자	고려대	자연	교과	학교추천전형Ⅰ	1.4	0.5	2.8	1.0
2019	합격자	고려대	자연	교과	학교추천전형Ⅰ	1.2	0.2	2.2	0.5
2019	지원자	고려대	자연	종합	학교추천전형Ⅱ	1.7	0.4	2.5	0.9
2019	합격자	고려대	자연	종합	학교추천전형Ⅱ	1.5	0.3	2.0	0.6
2018	지원자	서울대	인문	종합	일반전형	1.8	0.6	1.9	0.8
2018	합격자	서울대	인문	종합	일반전형	1.4	0.3	1.5	0.4
2018	지원자	서울대	인문	종합	지역균형선발전형	1.3	0.5	1.8	0.6
2018	합격자	서울대	인문	종합	지역균형선발전형	1.2	0.1	1.4	0.3
2018	지원자	서울대	자연	종합	일반전형	1.8	0.5	2.2	0.9
2018	합격자	서울대	자연	종합	일반전형	1.5	0.3	1.7	0.7
2018	지원자	서울대	자연	종합	지역균형선발전형	1.4	1.0	2.3	1.0
2018	합격자	서울대	자연	종합	지역균형선발전형	1.2	0.2	1.7	0.5
2019	지원자	연세대	인문	논술	논술전형	3.5	1.2	2.4	1.0
2019	합격자	연세대	인문	논술	논술전형	2.4	0.6	1.6	0.3
2018	지원자	연세대	인문	논술	일반전형	3.3	1.2	2.3	0.9
2018	합격자	연세대	인문	논술	일반전형	2.6	0.9	1.7	0.5
2018	지원자	연세대	인문	종합	학생부종합전형(면접형)	1.6	0.9	2.1	1.2
2018	합격자	연세대	인문	종합	학생부종합전형(면접형)	1.3	0.5	1.7	0.7
2019	지원자	연세대	인문	종합	학생부종합전형(면접형)	1.6	0.5	1.8	0.8
2019	합격자	연세대	인문	종합	학생부종합전형(면접형)	1.4	0.3	1.7	0.8
2018	지원자	연세대	인문	종합	학생부종합전형(활동우수형)	1.7	0.6	1.8	0.7
2018	합격자	연세대	인문	종합	학생부종합전형(활동우수형)	1.4	0.3	1.6	0.5
2019	지원자	연세대	인문	종합	학생부종합전형(활동우수형)	1.9	0.6	1.8	0.7
2019	합격자	연세대	인문	종합	학생부종합전형(활동우수형)	1.5	0.3	1.6	0.5
2019	지원자	연세대	자연	논술	논술전형	3.4	1.2	2.7	1.1
2019	합격자	연세대	자연	논술	논술전형	2.4	0.7	1.7	0.3
2018	지원자	연세대	자연	논술	일반전형	3.2	1.1	2.6	1.0
2018	합격자	연세대	자연	논술	일반전형	2.3	0.8	1.7	0.4
2018	지원자	연세대	자연	종합	학생부종합전형(면접형)	1.5	0.8	2.4	1.1
2018	합격자	연세대	자연	종합	학생부종합전형(면접형)	1.2	0.3	2.2	0.9
2019	지원자	연세대	자연	종합	학생부종합전형(면접형)	1.8	1.0	2.6	1.3
2019	합격자	연세대	자연	종합	학생부종합전형(면접형)	1.3	0.3	1.9	0.7
2018	지원자	연세대	자연	종합	학생부종합전형(활동우수형)	1.7	0.6	2.1	0.8
2018	합격자	연세대	자연	종합	학생부종합전형(활동우수형)	1.3	0.3	2.0	0.6
2019	지원자	연세대	자연	종합	학생부종합전형(활동우수형)	1.9	0.7	2.2	1.0
2019	합격자	연세대	자연	종합	학생부종합전형(활동우수형)	1.5	0.5	2.0	0.5
2018	지원자	서강대	인문	논술	논술전형	3.7	1.2	2.5	1.0
2018	합격자	서강대	인문	논술	논술전형	3.1	0.9	2.1	0.6
2019	지원자	서강대	인문	논술	논술전형	4.0	1.1	2.9	1.1
2019	합격자	서강대	인문	논술	논술전형	3.3	0.8	1.9	0.4
2018	지원자	서강대	인문	종합	학생부종합전형(일반형)	2.2	0.9	2.0	0.7
2018	합격자	서강대	인문	종합	학생부종합전형(일반형)	1.7	0.5	1.8	0.5
2019	지원자	서강대	인문	종합	학생부종합전형(일반형)	2.2	0.7	2.0	0.8
2019	합격자	서강대	인문	종합	학생부종합전형(일반형)	1.7	0.4	1.8	0.5

년도	자격	대학	계열	구분	전형명	교과 평균	교과 표준편차	수능 평균	수능 표준편차
2018	지원자	서강대	인문	종합	학생부종합전형(자기주도형)	2.2	0.9	2.6	1.2
2018	합격자	서강대	인문	종합	학생부종합전형(자기주도형)	1.7	0.5	2.1	0.8
2019	지원자	서강대	인문	종합	학생부종합전형(자기주도형)	2.4	0.8	2.2	0.9
2019	합격자	서강대	인문	종합	학생부종합전형(자기주도형)	1.9	0.5	1.8	0.6
2018	지원자	서강대	자연	논술	논술전형	3.7	1.1	3.0	1.0
2018	합격자	서강대	자연	논술	논술전형	2.7	0.7	2.2	0.5
2019	지원자	서강대	자연	논술	논술전형	3.8	1.0	3.1	1.1
2019	합격자	서강대	자연	논술	논술전형	3.4	0.9	1.9	0.2
2018	지원자	서강대	자연	종합	학생부종합전형(일반형)	2.4	0.9	2.5	0.8
2018	합격자	서강대	자연	종합	학생부종합전형(일반형)	1.9	0.5	2.1	0.4
2019	지원자	서강대	자연	종합	학생부종합전형(일반형)	2.3	0.7	2.5	0.8
2019	합격자	서강대	자연	종합	학생부종합전형(일반형)	1.8	0.4	2.3	0.5
2018	지원자	서강대	자연	종합	학생부종합전형(자기주도형)	2.3	0.8	3.0	1.0
2018	합격자	서강대	자연	종합	학생부종합전형(자기주도형)	1.9	0.5	2.7	0.8
2019	지원자	서강대	자연	종합	학생부종합전형(자기주도형)	2.4	0.7	2.9	0.9
2019	합격자	서강대	자연	종합	학생부종합전형(자기주도형)	1.9	0.4	2.7	0.7
2018	지원자	성균관대	인문	논술	논술우수	3.7	1.2	2.7	1.0
2018	합격자	성균관대	인문	논술	논술우수	2.9	1.0	2.1	0.5
2019	지원자	성균관대	인문	논술	논술우수자전형	3.8	1.0	2.8	1.0
2019	합격자	성균관대	인문	논술	논술우수자전형	3.1	0.8	2.2	0.3
2019	지원자	성균관대	인문	종합	성균인재전형	2.0	0.7	2.2	0.9
2019	합격자	성균관대	인문	종합	성균인재전형	1.8	0.4	1.9	0.6
2018	지원자	성균관대	인문	종합	종합	2.1	0.9	2.4	1.0
2018	합격자	성균관대	인문	종합	종합	1.7	0.5	2.1	0.7
2018	지원자	성균관대	자연	논술	논술우수	3.5	1.2	2.9	1.0
2018	합격자	성균관대	자연	논술	논술우수	2.7	0.9	2.1	0.5
2019	지원자	성균관대	자연	논술	논술우수자전형	3.7	1.1	3.1	1.0
2019	합격자	성균관대	자연	논술	논술우수자전형	2.7	0.7	2.1	0.3
2019	지원자	성균관대	자연	종합	성균인재전형	2.2	0.8	2.9	0.9
2019	합격자	성균관대	자연	종합	성균인재전형	1.6	0.4	2.5	0.7
2018	지원자	성균관대	자연	종합	종합	2.1	0.9	2.9	1.0
2018	합격자	성균관대	자연	종합	종합	1.7	0.5	2.4	0.8
2018	지원자	한양대	인문	논술	논술	4.2	1.2	3.5	1.3
2018	합격자	한양대	인문	논술	논술	3.8	1.2	2.2	0.8
2019	지원자	한양대	인문	논술	논술전형	4.4	1.2	3.7	1.4
2019	합격자	한양대	인문	논술	논술전형	4.4	1.1	2.8	0.6
2018	지원자	한양대	인문	교과	학생부교과	1.7	1.3	2.8	1.3
2018	합격자	한양대	인문	교과	학생부교과	1.1	0.1	2.6	1.2
2019	지원자	한양대	인문	교과	학생부교과전형	1.9	1.2	2.7	1.1
2019	합격자	한양대	인문	교과	학생부교과전형	1.1	0.1	1.9	0.8
2018	지원자	한양대	인문	종합	학생부종합	2.7	1.3	3.2	1.3
2018	합격자	한양대	인문	종합	학생부종합	1.7	0.5	2.5	1.1
2019	지원자	한양대	인문	종합	학생부종합전형(일반)	3.0	1.4	3.4	1.5
2019	합격자	한양대	인문	종합	학생부종합전형(일반)	1.9	0.6	2.7	1.0

V. 대입 환경변화에 대비한 진학지도

년도	자격	대학	계열	구분	전형명	교과 평균	교과 표준편차	수능 평균	수능 표준편차
2018	지원자	한양대	자연	논술	논술	3.8	1.2	3.3	1.2
2018	합격자	한양대	자연	논술	논술	3.4	1.1	3.0	1.0
2019	지원자	한양대	자연	논술	논술전형	4.0	1.2	3.4	1.2
2019	합격자	한양대	자연	논술	논술전형	3.6	0.8	2.8	0.8
2018	지원자	한양대	자연	교과	학생부교과	1.5	0.9	3.1	1.3
2018	합격자	한양대	자연	교과	학생부교과	1.1	0.1	2.8	1.1
2019	지원자	한양대	자연	교과	학생부교과전형	1.8	1.2	3.0	1.1
2019	합격자	한양대	자연	교과	학생부교과전형	1.2	0.1	2.5	0.8
2018	지원자	한양대	자연	종합	학생부종합	2.6	1.2	3.3	1.3
2018	합격자	한양대	자연	종합	학생부종합	1.7	0.5	2.9	1.2
2019	지원자	한양대	자연	종합	학생부종합전형(일반)	2.7	1.2	3.3	1.5
2019	합격자	한양대	자연	종합	학생부종합전형(일반)	1.9	0.6	2.8	1.2
2018	지원자	경희대	인문	종합	고교대학연계전형	1.9	0.8	2.8	1.0
2018	합격자	경희대	인문	종합	고교대학연계전형	1.6	0.3	2.6	0.9
2019	지원자	경희대	인문	종합	고교대학연계전형	2.0	0.5	2.9	1.0
2019	합격자	경희대	인문	종합	고교대학연계전형	1.8	0.3	2.9	1.1
2018	지원자	경희대	인문	종합	네오르네상스전형	2.6	1.0	3.2	1.3
2018	합격자	경희대	인문	종합	네오르네상스전형	2.0	0.5	2.7	0.9
2019	지원자	경희대	인문	종합	네오르네상스전형	2.8	0.9	3.2	1.3
2019	합격자	경희대	인문	종합	네오르네상스전형	2.2	0.5	2.5	1.1
2018	지원자	경희대	인문	논술	논술우수자전형	3.9	1.1	3.2	1.1
2018	합격자	경희대	인문	논술	논술우수자전형	2.9	0.7	2.5	0.6
2019	지원자	경희대	인문	논술	논술우수자전형	4.1	0.9	3.4	1.1
2019	합격자	경희대	인문	논술	논술우수자전형	3.4	0.6	2.7	0.6
2018	지원자	경희대	자연	종합	고교대학연계전형	1.9	0.5	3.3	1.0
2018	합격자	경희대	자연	종합	고교대학연계전형	1.6	0.2	3.1	0.9
2019	지원자	경희대	자연	종합	고교대학연계전형	2.1	0.7	3.7	1.0
2019	합격자	경희대	자연	종합	고교대학연계전형	1.9	0.4	3.7	0.9
2018	지원자	경희대	자연	종합	네오르네상스전형	2.4	1.0	3.3	1.2
2018	합격자	경희대	자연	종합	네오르네상스전형	2.0	0.7	3.0	1.1
2019	지원자	경희대	자연	종합	네오르네상스전형	2.5	0.9	3.3	1.5
2019	합격자	경희대	자연	종합	네오르네상스전형	2.2	0.9	3.6	2.7
2018	지원자	경희대	자연	논술	논술우수자전형	3.8	1.2	3.3	1.2
2018	합격자	경희대	자연	논술	논술우수자전형	2.9	0.8	2.7	0.7
2019	지원자	경희대	자연	논술	논술우수자전형	4.2	1.1	3.7	1.1
2019	합격자	경희대	자연	논술	논술우수자전형	3.4	0.9	3.0	0.8
2018	지원자	서울시립대	인문	논술	논술전형	3.5	1.0	3.4	1.0
2018	합격자	서울시립대	인문	논술	논술전형	2.5	0.4	2.8	0.6
2019	지원자	서울시립대	인문	논술	논술전형	4.2	1.0	3.9	1.3
2019	합격자	서울시립대	인문	논술	논술전형	2.8	0.3	2.7	0.7
2018	지원자	서울시립대	인문	교과	학생부교과전형	2.4	1.4	2.9	1.1
2018	합격자	서울시립대	인문	교과	학생부교과전형	1.5	0.3	2.2	0.5
2019	지원자	서울시립대	인문	교과	학생부교과전형	2.0	0.8	2.8	1.0
2019	합격자	서울시립대	인문	교과	학생부교과전형	1.5	0.1	2.1	0.3

년도	자격	대학	계열	구분	전형명	교과 평균	교과 표준편차	수능 평균	수능 표준편차
2018	지원자	서울시립대	인문	종합	학생부종합전형	2.3	0.7	3.0	1.1
2018	합격자	서울시립대	인문	종합	학생부종합전형	1.9	0.4	2.8	1.1
2019	지원자	서울시립대	인문	종합	학생부종합전형	2.5	0.8	3.4	1.2
2019	합격자	서울시립대	인문	종합	학생부종합전형	2.2	0.5	2.9	0.8
2019	지원자	서울시립대	자연	논술	논술전형	4.2	1.1	4.0	1.1
2019	합격자	서울시립대	자연	논술	논술전형	2.9	0.6	3.5	0.7
2019	지원자	서울시립대	자연	교과	학생부교과전형	2.4	1.2	4.0	1.0
2019	합격자	서울시립대	자연	교과	학생부교과전형	1.5	0.1	3.8	0.3
2019	지원자	서울시립대	자연	종합	학생부종합전형	2.5	0.6	3.7	1.0
2019	합격자	서울시립대	자연	종합	학생부종합전형	2.7	0.9	3.6	0.8
2018	지원자	중앙대	인문	논술	논술전형	3.9	1.2	2.8	1.0
2018	합격자	중앙대	인문	논술	논술전형	3.2	0.9	2.2	0.5
2019	지원자	중앙대	인문	논술	논술전형	4.1	1.0	3.0	1.0
2019	합격자	중앙대	인문	논술	논술전형	3.7	1.0	2.1	0.4
2018	지원자	중앙대	인문	종합	다빈치인재	2.2	0.8	2.8	1.1
2018	합격자	중앙대	인문	종합	다빈치인재	2.0	0.6	2.6	0.9
2019	지원자	중앙대	인문	종합	다빈치형인재전형	2.3	0.7	2.8	1.0
2019	합격자	중앙대	인문	종합	다빈치형인재전형	2.0	0.4	2.5	0.8
2018	지원자	중앙대	인문	종합	탐구형인재	3.1	1.0	3.2	1.2
2018	합격자	중앙대	인문	종합	탐구형인재	2.2	0.6	2.7	0.8
2019	지원자	중앙대	인문	종합	탐구형인재전형	3.1	0.8	3.1	1.1
2019	합격자	중앙대	인문	종합	탐구형인재전형	2.6	0.6	2.4	0.6
2019	지원자	중앙대	인문	교과	학교장추천전형	1.8	0.5	2.6	0.9
2019	합격자	중앙대	인문	교과	학교장추천전형	1.4	0.2	2.8	0.9
2018	지원자	중앙대	인문	교과	학생부 교과전형	2.1	1.0	2.5	0.8
2018	합격자	중앙대	인문	교과	학생부 교과전형	1.5	0.2	1.9	0.5
2019	지원자	중앙대	인문	교과	학생부교과전형	2.3	1.0	2.7	0.9
2019	합격자	중앙대	인문	교과	학생부교과전형	1.8	0.5	2.3	0.9
2018	지원자	중앙대	자연	논술	논술전형	3.7	1.2	3.0	1.1
2018	합격자	중앙대	자연	논술	논술전형	3.0	0.9	2.2	0.5
2019	지원자	중앙대	자연	논술	논술전형	3.8	1.1	3.1	1.1
2019	합격자	중앙대	자연	논술	논술전형	3.1	0.9	2.2	0.7
2018	지원자	중앙대	자연	종합	다빈치인재	2.2	0.9	3.3	1.1
2018	합격자	중앙대	자연	종합	다빈치인재	1.9	0.5	3.0	1.1
2019	지원자	중앙대	자연	종합	다빈치형인재전형	2.4	0.8	3.3	1.2
2019	합격자	중앙대	자연	종합	다빈치형인재전형	2.1	0.8	3.0	0.8
2018	지원자	중앙대	자연	종합	탐구형인재	2.9	1.0	3.6	1.2
2018	합격자	중앙대	자연	종합	탐구형인재	2.4	0.7	3.1	0.9
2019	지원자	중앙대	자연	종합	탐구형인재전형	3.1	0.8	3.3	1.0
2019	합격자	중앙대	자연	종합	탐구형인재전형	2.5	0.5	2.7	0.5
2019	지원자	중앙대	자연	교과	학교장추천전형	2.2	0.7	3.4	0.9
2019	합격자	중앙대	자연	교과	학교장추천전형	1.4	0.1	3.1	0.4
2019	지원자	중앙대	자연	교과	학생부교과전형	2.9	1.2	3.5	0.9
2019	합격자	중앙대	자연	교과	학생부교과전형	2.5	1.1	2.9	0.8

V. 대입 환경변화에 대비한 진학지도

년도	자격	대학	계열	구분	전형명	교과 평균	교과 표준편차	수능 평균	수능 표준편차
2018	지원자	한국외대	인문	논술	논술전형	4.0	1.1	3.2	1.0
2018	합격자	한국외대	인문	논술	논술전형	3.3	0.9	2.8	0.8
2019	지원자	한국외대	인문	논술	논술전형	4.2	1.0	3.3	1.0
2019	합격자	한국외대	인문	논술	논술전형	3.4	0.8	2.4	0.4
2018	지원자	한국외대	인문	교과	학생부 교과전형	2.1	0.9	2.9	0.9
2018	합격자	한국외대	인문	교과	학생부 교과전형	1.7	0.4	2.5	0.8
2018	지원자	한국외대	인문	종합	학생부 종합전형	2.6	1.0	3.3	1.2
2018	합격자	한국외대	인문	종합	학생부 종합전형	2.1	0.6	3.2	1.1
2019	지원자	한국외대	인문	교과	학생부교과전형	2.2	0.9	2.9	1.0
2019	합격자	한국외대	인문	교과	학생부교과전형	1.6	0.3	2.3	0.7
2019	지원자	한국외대	인문	종합	학생부종합전형(일반)	2.7	0.8	3.3	1.0
2019	합격자	한국외대	인문	종합	학생부종합전형(일반)	2.1	0.5	3.6	1.4

[출처] 서울시교육청 프로그램팀 수시분석자료

3

효과적인 지원전략 수립을 위한 고려사항

〈자료1〉 정시 지원에서 영역별 희망대학의 등급평균성적에 대한 이해

〈자료1〉의 체크포인트

가. 지원가능한 누적비 확인

나. 누적비에 따른 영역별 백분위와 평균 등급 확인

수시와 정시의 상관관계를 정리한 1~2장 내용의 핵심은 지원대비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접근의 첫 번째는 수시를 수능과 별개로 해서는 좋은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주요 12~15개 대학을 희망하고자 할 때는 자료에서 확인하였듯이 더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정시의 복잡한 환산식 체계를 통한 지원가능선을 가늠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으나 대체적인 영역별 평균등급을 보고 수시지원시 합격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대학을 고려해보는 것은 상담의 첫걸음이다. 아래 표는 2020대수능 분석자료로 표준점수대별 정시 지원가능대학을 표시한 것이다.

정시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누적비의 수치이다. 물론 서울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은 이마저도 정확한 수치라고 보기 힘든 면이 있지만 수시에서 정시를 가늠할 때 가장 직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치라는 정도로 이해하면 무리가 없다. 왜냐하면 정시에서 뽑힐 정원은 해마다 거의 유사하나 표준점수는 당해년도 수능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시는 석차에 의한 선발이 핵심요소이기 때문이다. 물론 석차를 산출하는 방식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등의 전국 모든 대학이 다르며 대략 1000가지 방식 수준으로 다양하다. 그리고 누적비라는 석차개념은 1000여가지의 석차 방식 중 가장 직관적인 석차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보다 다양한 석차 산출하는 방식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서울시교육청에서 지원한 정시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된다.

〈 2020대수능 정시 지원가능대학별 영역별 평균점 : 국수나사탐응시자 〉

정시 지원 가능대학	2020 국수 탐표 점합	2020_국수나사탐 응시자											영어 등급별 비율		
		누적비	국수탐백	국백	수백	영등	탐백	국수 탐등	국등	수등	영등	탐등	1	2	3
서울대	407	0.4%	291.5	98.0	99.3	1.3	93.6	1.2	1.1	1.0	1.3	1.5	73%	24%	2%
연고대	401	1.0%	287.3	95.3	98.8	1.4	93.7	1.3	1.5	1.0	1.4	1.4	64%	36%	
주요6개대학	392	2.7%	280.6	93.5	96.3	1.6	90.3	1.6	1.7	1.3	1.6	1.8	56%	35%	7%
주요12개대학	386	4.4%	274.5	90.8	94.3	1.8	88.6	1.8	2.1	1.5	1.8	2.0	33%	53%	11%
주요15개대학	380	6.6%	266.8	87.8	92.3	2.0	86.2	2.2	2.4	1.9	2.0	2.2	31%	42%	23%
주요24개대학	373	9.5%	257.6	85.0	89.2	2.2	82.9	2.5	2.7	2.2	2.2	2.6	23%	46%	25%
서울소재대학	362	14.7%	242.1	79.8	82.9	2.3	79.3	3.0	3.1	2.9	2.3	2.9	17%	45%	27%

〈 2020대수능 정시 지원가능대학별 영역별 평균점 : 국수가과탐응시자 〉

정시 지원가능대학	2020 국수 탐표 점합	2020_국수가과탐 응시자											영어 등급별 비율		
		누적비	국수탐백	국백	수백	영등	탐백	국수 탐등	국등	수등	영등	탐등	1	2	3
전국외예	393	1.9%	287.8	97.2	96.1	1.3	94.6	1.3	1.2	1.3	1.3	1.5	77%	19%	3%
서연고	388	3.6%	282.2	95.8	93.3	1.5	93.1	1.6	1.4	1.6	1.5	1.7	59%	32%	9%
주요6개대학	381	7.0%	273.7	94.1	90.3	1.5	89.4	1.9	1.6	2.0	1.5	2.1	56%	37%	7%
주요12개대학	374	11.3%	263.2	90.7	86.1	1.8	86.4	2.3	2.0	2.4	1.8	2.4	41%	42%	15%
주요15개대학	367	16.3%	252.9	88.6	81.7	2.1	82.6	2.7	2.3	2.9	2.1	2.7	24%	46%	26%
주요24개대학	358	23.6%	237.7	84.2	75.9	2.1	77.6	3.1	2.7	3.4	2.1	3.2	23%	46%	25%
서울소재대학	348	32.0%	220.4	79.6	68.2	2.4	72.6	3.5	3.1	3.9	2.4	3.5	15%	44%	32%

[출처] 서울시교육청 프로그램팀 정시분석자료

〈자료2〉 주요대학의 종합전형 비율의 차이가 가지는 대학별 전형설계의 의도

〈자료2〉의 체크포인트

- 가. 대학별 전형설계의 특징 파악
- 나. 지원대비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원서의 배분

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해야 기업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을 당연히 여기듯, 대학도 학업역량이 우수한 학생을 확보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마찬가지로 지원자 입장에서선 선호도가 높은 기업이나 대학을 지원하고 싶은 마음은 같다. 하지만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종합전형이 선발비율이 높으므로 맹목적으로 지원하는 경향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학생은 자신이 가진 역량보다 높은 대학을 가고 싶어 하지만 대학은 학생의 기대치 보다 좀 더 높은 학생 즉 보다 선호도가 높은 대학에 합격 가능한 학생을 선발하고 싶은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도는 전형설계를 통해서 혹은 전형별 선발 유형을 통해서 드러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원자들은 단순 교과 성적을 기준으로 유불리를 판단하고 자신의 서류와 교과가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 뛰어날 것이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입시에 접근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아래 표는 2021대입에서 서울주요대학 전형별 선발인원 및 비율을 일반전형을 기준으로 계산한 값이다. 앞서 1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학마다 각자 타깃으로 하는 지원자 그룹을 선점하기 위해서 각자 사정에 맞게 전형별 인원을 선발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제공한 지금까지의 수시지원전략자료를 보면 수능<교과(수능우수자), 수능=교과(수능과 비슷한 교과), 수능<교과(교과우수자)에 따른 지원성향에 대한 분석자료들이 있다. 하지만 수시 6회 지원에 있어서 수시와 정시를 별개로 여길 경우 우수한 교과 성적만을 바탕으로 하여 정시의 지원선을 가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전체적인 전형설계상의 특징을 파악하지 못하고 자신만의 입장에서 전체를 이해하려는 오류를 범하기 것이며, 당연히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존의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위에서 언급한 자료인 ‘〈자료2〉 서울시 주요 12개 대학의 수능-교과 평균치 비교’의 내용을 보면 교과1등급 인문학생의 경우 주요 3개 대학 수준에만 집중 지원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지원자의 수능지수가 정시에서 건국대 선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수시모집만 고려하는 전략은 재수불사를 각오로 한다고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6회를 지원하는 수시에서 많이 지원한다고 많이 붙을 것 같다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쟁률이 30:1이 넘어가면 30명 학급정원에서 한명만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인데 전국에 한 학급만 존재하지 않는다. 게다가 그러한 경쟁률의 학과 정원이 20명이었다면 전국 2400여개 고등학교의 모든 학급 가운데 20개 학급에만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6장의 원서를 효율적으로 자신의 성적 특징에 맞게 고르게 분포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전략이며 학과를 선택할 때 유사학과를 통해 선호학과를 피해가는 것도 중요한 방법임을 알 필요가 있다.

〈 2021대입 서울주요대학 전형별 선발인원 및 비율 〉

*일반전형을 기준으로 계산한 값임

대학명	수시(교과)				수시(논술)				수시(종합)				정시(수능)				총합	주요 대학급 간별 누계
	인문	자연	소계	비율	인문	자연	소계	비율	인문	자연	소계	비율	인문	자연	소계	비율		
고려	608	550	1,158	32.9%				0.0%	850	836	1,686	47.8%	341	340	681	19.3%	3,525	
서울				0.0%				0.0%	872	1,342	2,214	76.5%	281	398	679	23.5%	2,893	
연세				0.0%	124	260	384	12.5%	863	801	1,664	54.0%	514	520	1,034	33.5%	3,082	
주요3개대 소계	608	550	1,158	12.2%	124	260	384	4.0%	2,585	2,979	5,564	58.6%	1,136	1,258	2,394	25.2%	9,500	19,000
서강				0.0%	144	91	235	15.4%	514	301	815	53.4%	292	185	477	31.2%	1,527	
서울교대	60		60	17.0%				0.0%	135		135	38.4%	157		157	44.6%	352	
성균관				0.0%				0.0%	798	690	1,488	59.7%	467	536	1,003	40.3%	2,491	
한양	106	158	264	11.6%	104	258	362	15.9%	394	524	918	40.3%	274	461	735	32.3%	2,279	
주요 7개대 소계	166	158	324	4.9%	248	349	597	9.0%	1,841	1,515	3,356	50.4%	1,202	1,182	2,384	35.8%	6,661	32,310
경희				0.0%				0.0%	887	971	1,858	61.3%	509	665	1,174	38.7%	3,032	
시립	122	71	193	13.4%	21	80	101	7.0%	294	293	587	40.8%	267	289	556	38.7%	1,437	
이화여	182	179	361	15.8%	261	206	467	20.4%	472	371	843	36.9%	287	327	614	26.9%	2,285	
중앙	263	184	447	15.2%	391	314	705	23.9%	604	476	1,080	36.7%	271	441	712	24.2%	2,944	
한국외대	405	86	491	15.1%	489		489	15.1%	906	145	1,051	32.3%	927	291	1,218	37.5%	3,249	
주요 12개대 소계	972	520	1,492	11.5%	1,162	600	1,762	13.6%	3,163	2,256	5,419	41.9%	2,261	2,013	4,274	33.0%	12,947	58,204
건국				0.0%	130	315	445	16.3%	473	885	1,358	49.6%	344	590	934	34.1%	2,737	
동국				0.0%	243	209	452	23.9%	590	554	1,144	60.5%	415	333	748	39.5%	1,892	
숙명여	150	94	244	14.1%	202	98	300	17.4%	420	252	672	38.9%	314	197	511	29.6%	1,727	
홍익	120	259	379	19.8%	120	259	379	19.8%	120	259	379	19.8%	249	532	781	40.7%	1,918	
주요 16개대 소계	270	353	623	7.5%	695	881	1,576	19.0%	1,603	1,950	3,553	42.9%	1,322	1,652	2,974	35.9%	8,274	74,752
광운	56	95	151	9.7%	77	129	206	13.2%	205	381	586	37.5%	223	396	619	39.6%	1,562	
국민	184	279	463	21.4%				0.0%	441	495	936	43.2%	418	349	767	35.4%	2,166	
서울과기	42	353	395	23.6%	24	242	266	15.9%	55	308	363	21.7%	85	565	650	38.8%	1,674	
세종	113	276	389	19.1%	115	223	338	16.6%	132	413	545	26.7%	209	559	768	37.6%	2,040	
송실	208	271	479	20.5%	133	159	292	12.5%	302	426	728	31.2%	392	444	836	35.8%	2,335	
주요 21개대 소계	603	1,274	1,877	15.6%	349	753	1,102	9.2%	1,135	2,023	3,158	26.3%	1,327	2,313	3,640	30.3%	12,008	98,768

〈자료3〉 모의평가는 수능이 아닌 모의평가라는 말의 참뜻 이해

〈자료3〉의 체크포인트

가. 모의평가 누적석차의 특징 파악

나. 등급이 아닌 영역별 원점수를 목표치로 설정하는 것의 의미 파악

3학년에서 실시되는 모의평가는 총6회(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이다. 이 가운데 통계상 유의미한 자료는 3월, 6월, 9월이다. 물론 과탐Ⅱ과목의 경우 4월부터 출제되므로 나름 유의미할 수 있겠으나 필자가 3개를 유의미하다고 평가하는 이유는 응시자의 질적 차이를 고려하여 수능에서의 예상 등급을 유추 할 가능성이 높은 시험이기 때문이다. 3월 모의평가의 경우 대다수의 재학생이 치르는 모의고사이며, 6월은 재수생이 유입되는 첫 시험이고, 9월의 경우 일정한 N수생이 유입되는 시점이어서 응시집단의 성격이 다소 다르다. 그러나 결국 수능은 재학생+재수생+N수생까지 모두 포함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수능까지 공부를 해야 일정 수준의 학력지수를 유지하거나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게다가 앞장에서 정시는 점수가 아닌 대학별로 산정한 계산식에 의한 석차로 합불이 결정되는 전형이라는 점을 이해한다면 응시집단이 각각 다른데 모의평가에서의 석차가 수능과 일치한다고 장담하기 힘들다는 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모의평가는 점차 증가하는 시험범위에 맞게 자신의 원점수를 바탕으로 목표하는 등급까지의 학업역량을 키우는데 전념할 필요가 있다.

아래 표는 3월, 6월, 9월, 대수능의 원점수별 백분위의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국수영탐 영역 모두 동일한 원점수지만 지속적으로 백분위가 하락하는 경향을 알 수 있다. 백분위는 곧 해당 시험의 석차를 의미하므로 정시에서 희망하는 대학의 평균 등급을 받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원점수를 향상시켜야 하는 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간혹 수시 상담에서 학생들이 최저 학력기준 충족여부나 정시 지원가능여부를 전체 모의고사 성적 가운데 가장 응시자가 적은 4월, 7월, 10월 성적 등을 근거로 자신감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좋은 성적이라면 칭찬을 아끼지 않아야 하겠지만 전반적인 성적의 흐름을 보지 못하고 단편적인 특정영역의 성적을 대수능과 동일 시하는 태도는 바람직 하지 않다고 봐야 한다.

〈 2020대입 3월, 6월, 9월, 대수능의 원점수 기준 백분위 변화 〉

원점수	백분위											
	국어				수가				수나			
	3월	6월	9월	대수능	3월	6월	9월	대수능	3월	6월	9월	대수능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95	100	100	99	99	99	99	99	98	100	99	99	100
90	99	98	96	95	96	97	95	94	99	96	97	99
85	97	93	92	89	92	94	90	88	98	94	94	97
80	95	87	83	81	87	86	79	78	96	90	88	93
75	91	81	77	73	80	80	70	69	93	86	83	88
70	86	73	66	65	75	71	62	59	90	82	77	84
65	80	65	59	56	68	63	53	51	85	77	74	78
60	73	56	51	48	62	51	47	45	81	72	68	71

원점수	백분위											
	국어				수학				수학			
	3월	6월	9월	대수능	3월	6월	9월	대수능	3월	6월	9월	대수능
55	65	48	44	40	57	45	40	40	75	67	62	65
50	56	40	38	34	51	35	34	35	71	61	57	58
45	46	32	31	27	48	31	28	31	65	56	52	53
40	36	25	27	20	43	25	24	26	60	50	48	46
35	27	20	22	14	38	22	21	22	54	45	43	40

원점수	백분위															
	생활과윤리				윤리와사상				한국지리				세계지리			
	3월	6월	9월	대수능	3월	6월	9월	대수능	3월	6월	9월	대수능	3월	6월	9월	대수능
50	100	99	98	99	100	99	99	93	100	99	98	97	100	98	98	98
48	99	97	96	95	100	96	96	84	99	98	96	93	99	94	92	94
46	98	94	93	90	99	93	90	78	99	94	91	86	98	89	88	88
44	97	89	86	81	99	90	86	68	98	88	88	83	97	86	85	78
42	95	86	85	76	98	88	83	64	97	85	83	76	95	82	78	74
40	93	82	78	70	97	85	78	61	95	80	80	75	94	79	74	68
38	90	78	76	61	95	83	75	56	93	73	76	69	92	74	69	64
36	86	74	69	58	93	79	74	53	91	70	73	66	89	71	66	58
34	81	70	68	52	90	78	70	51	88	64	69	64	86	66	63	55
32	75	64	63	48	87	74	68	47	85	61	66	60	83	63	57	51
30	68	60	59	43	84	72	66	45	81	55	61	58	80	58	55	48
28	60	55	54	36	80	67	62	43	76	48	59	53	75	54	49	44
26	54	46	49	34	76	63	60	39	70	46	54	51	70	49	46	38
24	48	44	46	28	71	60	57	36	64	40	50	45	65	45	41	35

원점수	백분위																			
	동아시아사				세계사				법과정치				경제				사회문화			
	3월	6월	9월	대수능	3월	6월	9월	대수능	3월	6월	9월	대수능	3월	6월	9월	대수능	3월	6월	9월	대수능
50	99	98	99	98	99	99	99	98	100	99	100	99	99	99	98	100	99	100	99	99
48	97	96	98	93	99	97	96	92	99	96	100	96	98	97	96	99	98	99	98	98
46	94	94	96	90	97	95	91	85	97	93	99	92	97	95	93	98	94	98	97	95
44	93	92	93	87	96	92	89	80	96	92	97	90	95	93	91	95	92	96	91	91
42	90	91	92	81	95	91	87	76	94	87	96	81	94	91	86	92	89	94	90	85
40	88	88	87	78	94	89	82	68	93	86	93	77	92	89	84	89	87	91	83	81
38	86	85	83	71	93	86	80	65	91	81	91	71	90	87	81	84	82	87	76	72
36	82	83	81	66	91	85	75	62	89	78	88	68	88	85	80	80	78	85	72	63
34	79	79	77	63	90	82	74	57	87	76	84	63	87	84	78	77	75	81	66	61
32	77	77	73	58	88	80	72	55	84	71	81	60	84	83	75	71	71	77	63	54
30	73	72	71	56	86	78	68	53	81	68	77	56	82	80	74	67	68	71	56	52
28	69	68	66	51	84	75	65	50	77	63	74	53	79	78	70	64	62	68	52	47
26	66	65	62	49	82	72	61	48	74	60	69	48	77	76	69	59	56	63	49	45
24	61	59	60	44	80	70	59	44	69	54	64	46	75	74	66	55	52	58	44	41

원점수	백분위															
	물리1				화학1				생명과학1				지구과학1			
	3월	6월	9월	대수능	3월	6월	9월	대수능	3월	6월	9월	대수능	3월	6월	9월	대수능
50	100	100	98	99	100	99	98	99	100	99	99	99	100	100	100	100
48	100	99	95	97	99	99	95	98	99	98	98	97	100	100	100	100
46	99	99	89	93	98	96	92	97	98	96	96	93	99	99	99	99
44	98	97	86	86	97	94	86	93	96	95	92	86	98	98	98	97
42	96	94	78	81	96	88	83	84	95	92	90	83	98	96	96	94
40	94	90	74	74	94	86	76	76	93	88	85	76	96	94	94	92
38	92	86	68	64	92	81	72	66	91	85	79	72	95	93	91	88
36	90	84	65	61	90	73	66	61	89	81	77	66	93	91	89	83
34	87	78	63	54	88	71	64	50	86	80	71	63	91	87	85	78
32	84	71	57	50	84	65	57	44	84	73	65	57	89	83	81	72
30	80	66	54	45	81	59	54	39	81	69	63	55	86	79	76	67
28	78	63	50	39	78	55	48	37	77	64	56	49	83	74	70	61
26	72	57	47	37	74	50	42	31	73	59	52	45	79	68	64	55
24	68	50	43	33	69	44	39	28	67	54	50	42	74	57	58	52

원점수	백분위															
	물리2				화학2				생명과학2				지구과학2			
	3월	6월	9월	대수능	3월	6월	9월	대수능	3월	6월	9월	대수능	3월	6월	9월	대수능
50		100	98	100		100	98	98		99	99	100		99	100	98
48		100	96	97		99	95	95		98	98	99		98	99	96
46		99	93	95		97	93	90		97	96	98		96	98	90
44		98	91	94		97	92	87		92	94	95		92	95	86
42		97	88	89		94	88	82		91	89	87		90	94	78
40		94	87	86		93	86	79		88	85	82		88	90	74
38		93	83	81		91	82	72		85	80	75		85	85	68
36		92	82	75		90	80	69		84	78	67		82	83	64
34		90	79	72		89	76	64		80	75	63		80	77	59
32		88	78	67		86	74	61		79	73	57		77	76	56
30		86	75	64		84	71	56		75	70	55		76	71	52
28		84	73	60		82	69	53		71	68	51		73	67	49
26		82	71	58		80	65	48		69	65	49		70	65	44
24		79	69	54		78	63	46		63	63	45		68	60	42

〈자료4〉 학생 수 변화에 따른 교과성적의 이해

〈자료4〉의 체크포인트

- 가. 인구감소에 따른 예상결과 이해
- 나. 학교규모별 인구감소에 따른 교과성적 변화 이해

〈 2020, 2021, 2022학년도 대입의 학령인구 변화 〉

	2020	2021	2022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	501,616	445,479	463,932

2020학년도 대입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는 50만 명 수준이었지만 2021학년도 대입에서는 45만 명 수준으로 감소한다. 대략 5만명 정도가 전국적으로 감소하는 것이며 이러한 학생 수의 감소는 수학능력시험에서 영역별 등급을 받기가 더 어려워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학생 수가 감소할 수 있다는 예측을 할 수 있다. 이 부분 또한 대입 전형에서 특히,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는 전형에서는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교과성적의 변화로 보인다. 전국적으로 5만명 정도 감소한다는 것이 실제로 학교별 교과 성적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학교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예측할 수 있다. 다음 표는 학교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를 100미만, 100명 이상 200명 미만, 200명 이상 300명 미만, 300명 이상 400명 미만, 400명 이상의 규모의 학교로 분류하여 학생 수의 감소에 따른 고등학교 규모의 변화를 살펴본 표이다.

〈 고등학교 학생 규모 변화 〉

학교당 학생수	고등학교 수 (전국 1600여 개 일반고, 자공고)			고등학교 수 (서울 207개 일반고, 자공고)		
	2020학년도 대입	2021학년도 대입	2022학년도 대입	2020학년도 대입	2021학년도 대입	2022학년도 대입
100명 미만	205	243	237		3	3
100~200	337	484	422	35	65	56
200~300	612	642	645	94	92	89
300~400	384	229	286	58	43	51
400~500	71	14	22	18	4	8
500~600	2			2		

300명 이상의 규모의 학교는 전국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200명 내외의 학교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학교별 학생 수가 감소하고 이러한 작은 규모의 학교가 증가함에 따라 학교별로 산출되는 교과성적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2020학년도의 2등급과 2021학년도의 2등급이 교과등급으로 같은 수준으로 파악하고 수시와 정시를 지원하려 한다면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볼 수 있다.

〈 서울지역 9개 고등학교 교과성적 변화분석 〉

고등학교	2021학년도 대입	2020학년도 대입	감소 인원	2020학년도 대비 감소비율
A고	321	368	47	12.8%
B고	315	391	76	19.4%
C고	320	383	63	16.4%
D고	189	231	42	18.2%
E고	272	320	48	15.0%

고등학교	2021학년도 대입	2020학년도 대입	감소 인원	2020학년도 대비 감소비율
F고	302	372	70	18.8%
G고	396	432	36	8.3%
H고	168	239	71	29.7%
I고	153	239	86	36.0%
합계	2,436	2,975	539	18.1%

전년 대비 학생 수가 감소한 서울지역 9개 고등학교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를 조사한 표이다. 평균적으로 18%정도 감소했으며 가장 많이 감소한 학교는 36%가 감소하였다. 가장 적게 감소한 학교는 8.3%이다.

전체석차	국수영사과 평균 석차등급		
	2021학년도	2020학년도 대입	2021-2020
1	1.03	1.07	-0.04
50	1.7	1.59	0.11
100	1.98	1.93	0.05
150	2.26	2.15	0.11
200	2.49	2.36	0.13
250	2.77	2.52	0.25
300	2.95	2.7	0.25
350	3.09	2.83	0.26
400	3.28	2.98	0.3
450	3.41	3.11	0.3
500	3.51	3.27	0.24

9개 고등학교의 국수영사과 평균 석차등급을 기준으로 석차를 산출하여 같은 석차에 있는 학생의 등급을 비교하면 위 표와 같다. 전체적으로 18%정도 감소한 인원에서 같은 석차별 평균 교과등급은 대부분 하락하였다. 중위권 학생들의 석차등급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년도 수시 결과를 교과성적으로만 판단하여 상담하거나 지원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특히 전년 대비 인원 감소가 많은 고등학교일수록 전년도 합격자의 교과성적으로 당해 연도 수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은 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 국수영사과 평균 석차등급의 변화 〉

교내 석차 구간	국수영사과 평균 석차등급					
	I고등학교(36%감소)			G고등학교(8.3%감소)		
	2021학년도 대입	2020학년도 대입	2021-2020	2021학년도 대입	2020학년도 대입	2021-2020
1~5	1.6	1.52	0.07	1.33	1.36	-0.03
6~10	2.21	1.95	0.26	1.68	1.74	-0.06
11~15	2.48	2.23	0.25	1.89	1.88	0.02
16~20	2.95	2.54	0.41	2.17	1.98	0.2
21~25	3.39	2.8	0.59	2.34	2.04	0.29
26~30	3.53	3	0.54	2.47	2.2	0.28
31~35	3.6	3.12	0.48	2.58	2.4	0.18

교내 석차 구간	국수영사과 평균 석차등급					
	I고등학교(36%감소)			G고등학교(8.3%감소)		
	2021학년도 대입	2020학년도 대입	2021-2020	2021학년도 대입	2020학년도 대입	2021-2020
36~40	3.72	3.37	0.35	2.71	2.49	0.22
41~45	3.9	3.51	0.39	2.82	2.59	0.23
46~50	3.97	3.66	0.32	2.89	2.71	0.18
51~55	4.12	3.73	0.39	2.97	2.8	0.17

가장 많이 감소한 학교와 가장 적게 감소한 학교를 비교해보면 위 표와 같다. I고등학교는 같은 석차 구간에서 지난해보다 대부분 교과 등급이 하락하였다. 같은 석차 구간에서 0.5등급 정도 차이가 발생하는 곳이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2.5등급 정도의 수준의 학생은 이번 해에는 3등급 수준으로 교과 등급이 하락했다는 것이다. 물론 단순히 교과 등급으로 학생의 학업역량을 비교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만 많은 고등학교에서 단순히 전년도 합격자의 교과 등급을 이용하여 상담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 등급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상담할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별로 학생수의 감소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학생수 감소에 따른 전년도의 교과 등급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번 해 상담을 진행할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전형 모두 단순히 전년도의 교과 등급을 비교해서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수의 감소에 따른 교과 등급의 변화를 살펴보고 그 의미를 해석하고 상담해야 한다.

4

결론

최근 3~4년 전부터 수시 상담에서의 분위기나 혹은 입시결과에서 보여주는 공통적인 현상 두 가지가 있다. 종합전형을 단순 교과와 주요활동 몇 가지로 이해한다는 점과 수시에 몰입도가 강해지면서 수능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 움직임이다. 특히 전자는 대학에서 대입공정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입시결과 자료를 홈페이지나 설명회를 통해 공개하면서 더 강화가 되었고, 후자는 수능보다 교과가 조금 더 나은 상태에 있는 경우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였다. 만약 대학을 입학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라면 무엇이든 합격 가능한 방법을 찾으면 되겠지만 주요 15개 대학의 입시는 지원성향상 서울시내 학생만의 희망대학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언급한 사실과 목표라면 무엇이든 합격 가능한 방법을 찾으면 자신의 위치를 이해하고 경쟁력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교사들은 지원자들을 일선에서 상담하면서 지원대비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원서의 효과적인 배분을 위해서 정시와 수시를 이해하고 상담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